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h1>가 정 통 신 문</h1>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1 - 57호</p> <p>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목 : 2021년 제66회 「현충일」 계기 교육 자료 안내</p>		

1. 2021년 6월 6일(토) 제66회(현충일) :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장병들과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 1956년부터 6월 6일을 현충일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추념식과 참배행사, 각종 추모기념식이 국립현충원에서 거행되며, 기업·단체·가정 등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기도 한다. 국가보훈처 주관.

2. 제정 : 우리 나라는 1948년 8월에 정부를 수립한 뒤, 2년도 못 되어 6·25 전쟁을 겪었다. 이때 25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다. 1953년 9월 29일 동작구 동작동에는 6·25전쟁 중 순직한 국군장병들을 안치하기 위한 국군묘지의 설치가 확정되었다. 정부는 1955년 7월 15일 국군묘지관리소를 발족하고, 이듬해 4월에는 <국군묘지설치법>을 제정해, 군묘지의 운영과 관리를 제도화했다. 이 과정 중, 4월 19일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6월 6일을 '현충기념일'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날은 통상적으로 '현충일'로 불리다가 1975년 12월부터는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년부터는 대통령령, 공휴일로 정하게 되었다.

3. 연원 및 변천 : 국가가 존재하는 데에는 상당한 전란을 거치게 되어 있고, 모든 국가는 그 전란에서 희생된 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정부수립 후 2년도 채 못 되어 한국전쟁을 맞았고, 이에 40만 명 이상의 국군이 사망하였으며 백만 명에 달하는 일반 시민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다.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나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을 찾아가자 정부는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건」을 개정하여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여 공휴일로 하고 기념행사를 가지도록 하면서부터 지금에 이르고 있다.

4. 행사 : 현충일의 제정 이후 이전의 산발적으로 열리던 추모 행사는 국방부 소관으로 시행되었고, 1988년부터는 개별적으로 실시되었던 추념식과 참배행사 모두를 현충원에서 거행하게 되었다. 각종 추모 기념식과 함께 대통령 이하 정부요인들, 그리고 국민들이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한다. 이밖에 오전 10시 정각에 울리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전국민은 1분간 경건히 묵념을 하며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국군장병 및 순국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각 관공서를 비롯하여 각 기업, 단체, 가정 등에서 조기를 게양한다.

2021 06. 06.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p>마이스터고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p>  <p>54112 전북 군산시 군중길 28</p>	<p>올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p> <h1 style="text-align: center;">가 정 통 신 문</h1> <p>교무실 : 730-5500 행정실 : 730-5630</p>	<p>제 2021 - 58 호</p> <p>통지대상 : 1,2,3학년 학생 및 학부모</p>
<p>제목 : 2021년 제71주년 「6·25전쟁」 계기 교육 자료 안내</p>		

1. 요약 : 2021년 제71주년 6·25 전쟁 : 6·25 사변이라고도 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전쟁이라 불린다. 소련의 지원으로 군사력을 키운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여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국군은 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였다. 이어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열려 유엔군이 파병되었다. 유엔군의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고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자 다시 서울을 빼앗겼다.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2. 배경 : 한반도의 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을 전후하여 극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진 미국과 소련 등 주변 열강의 견제와 타협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중이던 1943년 11월 27일 미국·영국·중국 등 3개국의 정상이 참석한 카이로 회담에서 한국의 일본 예속은 부당하다고 인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 시키기로 합의했으며, 1945년 2월 알타에서 개최된 미국·영국·소련 등 3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미국·영국·중국·소련 등 4개국에 의한 일정 기간의 신탁통치를 거친 후 독립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의 군사력을 과대평가한 미국은, 일본 본토에 상륙할 때 일어날 막대한 인명피해를 우려하여 소련의 조기참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소련은 참전을 계속 지연시켜오다가 미국이 히로시마[廣島]에 사상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지 2일 후인 1945년 8월 8일 대일선전포고와 더불어 만주일대에서 한반도를 향하여 진격하기 시작했다.

3. 진행 :

◆ 제1단계 - 북한군의 남침이 개시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개시 이전까지로서 북한군의 공세단계이다.

◆ 제2단계 - UN군의 공세단계로서 1950년 9월 15일 맥아더 장군의 진두 지휘하에 1개 군단병력이 투입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함으로써 UN군은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했다(인천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고 경인지역을 장악한 UN군에 의하여 보급로와 후퇴로를 차단당한 북한군은 남북으로부터의 협공으로 모든 장비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산악지대로 도피함으로써 북한군 주력은 거의 궤멸상태에 빠졌으며, UN군은 급속도로 북진을 계속했다.

◆ 제3단계 - 1950년 11월부터 1951년 7월 휴전회담을 개시하기까지의 기간으로 북한군의 붕괴로 UN군에 의한 북한 전지역의 점령이 임박하게 되자, 대규모의 중국인민지원군이 개입함으로써 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 중국인민지원군의 '인해전술'에 압도당한 UN군은 북한으로부터 철수해 1951년 1월 4일 서울이 또다시 공산군의 수중에 들어갔으나, 길어진 병참선에 미국 공군의 강렬하고 지속적인 공격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중국인민지원군은 공세가 크게 둔화되어 UN군은 서울 남쪽 약 50km 지점의 평택과 원주를 연결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 제4단계 - 휴전회담으로 인한 소강상태 기간으로 양측의 전선이 지금의 휴전선 부근에 이르렀을 때, 미국 행정부는 한반도 내에서의 전력의 낭비는 유럽에서의 소련의 침공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판단 아래 전투 종결을 희망했다. 1951년 6월 23일 UN 주재 소련 대표 Y.A. 말리크가 미국에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교전 당사자들이 38°선을 경계로 전쟁 이전의 위치로 복귀할 것을 제의했다. 미국은 이를 공산군측이 휴전을 희망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신임 UN군 사령관인 리지웨이 장군으로 하여금 1951년 6월 30일 공산군측에 대하여 휴전제의를 방송을 하도록 했으며, 공산군측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휴전회담이 개시되었으나 일련의 사건 후에 회담장소는 판문점으로 변경되었다.

4. 결과 : 6·25전쟁은 3년 1개월간 계속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450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약 100만 명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이며, 공산진영의 인명피해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과 UN 참전국측은 UN 감시하에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민주적인 통일정부수립을 주장한 데 반하여, 공산군측은 오로지 주한 UN군의 철수만을 주장함으로써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남북한은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휴전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21. 06. 25.

군 산 기 계 공 업 고 등 학 교

